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5. 18 (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속앓이 금융지주들…美 공시엔 “포용금융에 건전성 악화 위험”

문화일보 https://zrr.kr/4fo7wJ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은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를 올해 경영상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지목
금융지주들은 미국 현지 사업보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 아래 경영상 위험을 의례적 나열이 일반적…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부분은 이번 보고서에 새로 추가

KB·신한·우리, '美 공시' 논란에 금요일 밤 입장문… "생산적·포용 금융 정책에 깊이 공감"

조선비즈 https://zrr.kr/353uSj

금융지주 3사는'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연차 보고서의 위험 요인 기재 관련 금융지주 3사 입장'을 배포
이들은 "정부의 생산적·포용 금융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핵심 경영 방향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반도체 제외한 대부분 업종 '신용 경고등'

한국경제 https://zrr.kr/1H0bJG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신용등급 하위 중소기업이 빠르게 증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중소기업 대부분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는 평가

韓 국고채 금리 껑충…영끌족 부담 커질듯

매일경제 https://zrr.kr/wuQZ3E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드는 가운데 국내 국고채와 은행채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
글로벌 금리 발작으로 금리 인상 여파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 영끌족을 비롯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주춤했던 서학개미 다시 '쑥'…美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연합뉴스 https://zrr.kr/nQgvsj

적극적인 '국장' 복귀 정책으로 주춤했던 서학 개미가 다시 빠르게 늘며 미국 주식 보관액이 300조원을 돌파
이들은 미국 빅테크 상승 랠리에 인텔 등 주요 기술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지난달 10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던 미국 주식 결제금액도 순매도 폭이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

부동산 대신 '미래'에 베팅한다…모험자본 엔진으로 진화

뉴시스 https://zrr.kr/EYuFWj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비생산적 분야에 과도하게 고여있던 대한민국 금융의 자금줄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급격히 이동
증권사들이 유망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모험자본 허브'로 변모하면서, 국가 경제의 실물 지원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

보험사 자본관리 해법 될까…'자산집약형 재보험' 주목

아시아경제 https://zrr.kr/kGFGml

보험업계가 고금리 확정형 보험 부담과 자본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 대안으로 자산집약형 재보험에 주목
이는 보험사가 부채뿐 아니라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까지 이전하는 구조를 갖춰 새 회계·건전성 제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

건강수명 관리 나선 보험사… 미래는 ‘병원 밖’에

한국보험신문 https://zrr.kr/i2J4Rt

단순 보장 중심이던 보험의 역할이 건강관리와 예방 영역까지 확장되면서 보험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모습
최근 보험업계의 핵심 키워드는 ‘웰니스(Wellness)’로, 질병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해지면서 일상 속 건강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바꾸고 있는 것

'크립토 천국' 美마이애미…수백만弗 주택 구입도 스테이블코인으로

매일경제 https://zrr.kr/GiOUej

미국에서는 규제 명확성이 개선되면서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하는 모습
이는 미국이 통화(스테이블코인), 디지털 금(비트코인), 자본시장(금융투자 상품) 등 3개 축을 통해 가상자산시장 패권 장악에 나서고 있기 때문

英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보유한도·준비금규제 완화 검토“

이데일리 https://zrr.kr/2PIYId

영국 파운드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안에 대해 디지털자산업계가 반발
이에 영란은행이 업계 지적을 반영해 스테이블코인 보유한도 방식과 준비금 규제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재검토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